

# 國語教育和學校圖書館

李 鍾 錄

(公州高等學校 司書教師)

## 1. 國語教育和圖書館의 目的

### (1) 國語教育의 目的

國語教育의 目的은 簡單히 要約해서 말한다면 弘益人間을 위한 人格陶冶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國語만이 그런 持論이 成立할수 있는가? 다른 學問은 위의 理論에서 除外하는 것인가 하고 反問이 있을 것이다. 勿論 다른 學科도 教養을 얻는 基礎 學問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數千年의 時間이 흘러가는 동안 같은 同族끼리 租上으로부터 이어받은 自然的인 條件下에 生을 營爲하는 동안 純粹한 感情을 서로 누린 우리나라의 母國語는 生活表現의 밑받침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單一民族에 單一語의 言語는 더욱 民族表現의 精華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言語는 그 나라의 文化와 道德을 代身하는 國民의 象徴이다. 밝고 어두운 生活의 水準과 情緒의 文化面을 斷片的으로 나타낸다.

### (2) 言語의 醇化

言語의 醇化는 社會的인 媒介를 改善함으로써 人間關係를 더욱 密接하게 하여 理解와 協同의 社會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個人的 人格과 心情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 美의 發見을 自覺하게 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오고 가는 말 가운데 人生의 美를 깨닫고 서로 讚辭하는 가운데 豊富한 人間美가 造成된다. 그러므로 言語의 醇化는 思想과 感情을 重視하며 民主的인 生活指導에 힘써야 하며 形式的인 面에서 機械的인 正確性을 訓練하게 된다.

## 2. 圖書館에서 얻는 國語學

### (1) 圖書館에서 얻는 國語學

學校生活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分은 圖書館 生活이라고 할수 있다. 그 理由는 教室에서 배우는 知識은 짧은 時間에 廣範圍의 領域을 얻기만 매우 辟한 일이다. 따라서 教室에서 얻은 學問을 基礎로 圖書館에서 얻는 知識이 學生生活에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그것이 人生航路에 넓은 幅이 되어 自身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또한 學問의 틀이 圖書館에서 얼마나 마련되는가는

學校의 圖書館이 있지않고는 그 眞價를 評할 수 없다. 그렇다면 國語學은 유달리 圖書館과는 密接한 關係를 맺게 된다. 文學이라는 廣範圍한 테두리 안에서 읽고 깨달아야 할 갖가지 書籍 그것은 圖書館이 아니고는 찾아 볼 수 없다.

### (2) 圖書館에서 읽는 良書

學生들은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까? 또 어떤 冊을 읽어야 할까? 그런 問題로 苦悶을 많이 한다. 단숨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젊은 時節에 갖고 싶어하는 偉大한 希望과 밤새워 쏘는 情熱! 이 얼마나 學生時節에 貴한 자량이 아닌가! 이때 몸부림 치는 學生들에게 圖書館은 반갑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教師들과 司書教師들의 힘이 참으로 무거운 것이다.

授業時間에 얻은 學識을 바탕으로 先生님은 學校圖書館에 있는 冊을 指摘하시고 그 冊을 學生들이 읽고 난 후에 비로서 學校圖書館이 얼마나 學生들 自身에게 貴重한 것인가를 알 것이다.

위와같은 뜻에서 學校는 圖書에 關한 索引과 資料蒐集 그리고 指定圖書에 緻密한 計劃과 運營이 가장 重要한 일이다.

學生들이 學校 教科書에만 全的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視野를 넓히고 豊富한 教養書籍을 얻는다는 일은 國語學에서 더욱 緊要한 일이다. 大學進學과 出世慾에 血眼이 되는 오늘과 같은 社會 風潮에서 좀더 부드럽고 人間味있는 世界를 發見하기 위해 先人들이 걸어간 길을 읽게 하는 것도 大端히 큰 意義가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世界文學全集」을 읽고 圖書館의 한 모퉁이에서 한 줄기의 眞理를 깨닫는 歡喜는 生涯를 通하여 忘却할수 없는 아름다운 追憶이 되며 또한 그 知識이 人生 生活에 얼마나 많은 情緒的인 感情을 북돋아 주는가! 읽지 않고는 맛 볼수 없는 일이다.

「입센」의 『바다의 夫人』에서 참된 人間像과 愛情의 規範을 알아 보듯이 『人形의 집』에서 精神의 安定感을 얼마나 크게 얻는가! 또한 「톨스토이」의 『참회』에서 미궁에 빠진 靑少年의 갈길을 얼마나 많은 指針을 주

있으며 「헛만 헛세」의 『청춘은 아름다워라』의 作品에서 靑春의 그리움을 이제 싹트려는 靑少年에게 담복 안겨 주었는가. 비단 이뿐만 아니라 數 많은 作品에도 그러한 先人들의 敎訓이 또렷이 엮여나가 있으니 學生時節에 徹頭徹尾 읽어야 할 良書는 世界文學作品이며 또 우리나라 大學 亦是 같은 讀書 選擇에 꼭 읽어야 할 책이 學校圖書館에 있을 것이다. 『내가 人生을 알기 위해서는 世界의 作品을 샅샅이 읽어라』는 「헛세」의 말과 같이 學生들은 圖書館에서 무엇보다도 世界文學 作品을 읽어야 할 것이다.

勿論 學校에서는 圖書카아드에 依해 學生들에게 읽기에 便利하도록 索引과 資料를 取捨選擇하여 文學·思潮에 依한 흐름에 따라 읽게 한후 반드시 讀後感을 發表시키고 훌륭한 作品으로 하여금 學級이나 文藝班 單位로 相互 鑑賞하는때까지 圖書館의 活用이 有益하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ㄷ ) 國語教育의 方向

理論學習에서 實踐學習으로 轉向하는 國語教育에서 創意性을 發揮하고 眞實한 生活態度에서 올바른 表現과 正確한 觀察力을 養成하는 일이 現 國語教育의 갈 길이다.

거기에는 文學, 語法, 文法, 發音 등이 重要한 國語教育의 課題이다. 이 課題를 잘 다루고 把握할때 文章 속에 깃들여 있는 內容을 알게 되는 것이다.

國語教師는 이와같은 手續이나 作業을 學生들에게 끊임없이 活動시켜 想像으로부터 創作의 世界로 眼目을 돌리게 하여야 할 것이다. 왜 過去의 國語教育이 沈滯되고 退步의 이었던가 이는 순전히 暗記와 固着된 踏步狀態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런 事由로 우리는 圖書館에서 文學作品이나 敎養書籍을 通하여 國語學的 實際的인 學習이 大端히 貴重한 部分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都市에서 흔히 느낄수 있는 異常한 感情이 때때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수가 많다. 5千年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民族이 순수한 言語를 自由롭게 使用한 때가 언제부터이며 現在는 어떠한가 생각할 때 自國語에 對한 새로운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勿論 이렇게 말하는 自身도 漢字를 이 紙面에서도 使用하지 않는가 自問할 때 文字가 없던 國碑文學의 時節에 漢字文學의 傳播란 어찌할 수 없던 時代의 인 不幸을 생각 안할수 없다.

어느날 서울의 거리에서 다방의 간판을 보고 느낀 일이다. 순수한 우리말로 된 말이 「거북, 금관, 백연, 송림, 김삿갓」 등이 있는가 하면 漢字 말을 한글로 적은 것이 「국제, 대로, 야자수, 여정, 초원, 대도회」 등이 있고 漢字로 直接 적은 것이 「仙宮, 勝利, 無名,

統一, 高麗」 등이 있고 外來語를 그대로 인용한 「루비, 심포니, 카보이, 에덴, 빅토리」 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일이다. 自國語를 자랑하고 가장 알기 쉽고 科學的이라는 한글이 왜 庶民生活까지 푸대접을 받는가 이도 역시 國語 研究의 깊이 反省할 點이며 學生들이 圖書館 活用品에도 漢字의 難解와 읽기 조작 어려운 文字에 悲鳴을 올릴때 至極히 안타까운 때가 많다. 特히 國文學史 時間때면 漢字 版書에 時間을 다 浪費하고 원 歷史性的인 理解에는 全然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다.

圖書館 活用品에도 學生들이 漢字 混用의 文學 書籍에 讀解力의 未熟한 實力으로 興味를 잃어 버리는 學生이 많다.

우리는 圖書館에서 特히 學校圖書館에서 「靜肅한 向學의 態度로 金字塔를 確立하자」라는 文句를 본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學生들이 全然 理解할 수도 없는 漢詩 「唐詩」를 壁에다가 걸어 놓고 朝夕으로 對하는 어느 圖書館도 눈에 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枯死木」이라고 쓴 글자를 본다. 이것도 「죽은 플라타너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 이용하는 車의 앞을 보면 「空車」라고 붙어있다. 이 역시 「빈차」가 자연스럽지 않느냐? 비단 이뿐만 아니라 銀行서 每日 같이 市民生活와 접하는 貯金關係에서 「一金 壹萬圓」보다 「돈 만원」이 錯誤가 생기지 않고 확실하지 않느냐! 圖書館에서 索引表 역시 漢字로 쓰이고 책 이름도 漢字로 써서 學生들로 하여금 책을 찾기에 힘드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大端한 일이 아니요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편이 많으나 우리는 自國語의 貴重한 뜻과 올바른 억힘이 없이는 學問의 참된 이치를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음 朗讀에 바른 姿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말하기」 가운데 우리는 正確한 發音 그리고 또렷한 말씨는 그 사람의 人格을 나타내는 것이다. 책을 읽고 말하는 發音이 正確할 때 自身の 思想이 얼마나 많은 理解力을 갖고 他人에게 傳達하는가. 이것은 實社會에 나갔을 때 充分한 力量을 分別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圖書館 活用品의 보람을 얻기 위해 圖書館에 放送裝置와 錄音機를 두어 學生들이 圖書館에서 읽은 여러가지 책을 發表하고 또한 읽는 練習을 할 때 授業時間에 배운 敎育課程이 산 敎育으로 옮기고 發表力이 發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一線 敎師로서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中高等學校 學生들이 자기 意思를 또렷하게 發表하는 學生이 몇이나

되는가? 授業時間에 비단 國語뿐만 아니라 다른 授業에도 先生님들이 學生에게 물어 보았을 때 대개가 龍頭蛇尾가 되어 끝을 완전히 맺는 學生이 거의 없다. 이것이 平素에 읽기와 말하기의 不足에서 오는 큰 原因이요 또한 뜻하는 證明이다.

어느날 圖書室에서 學生들에게 「왜 教室에서 말하기를 싫어하는가」를 調査한 結果 첫째로 授業時間外의 말하기 時間이 없다는 欲求不滿, 즉 個人發表의 機會와 校正이 全然 없다는 點이 들어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過剩狀態의 授業分布에 基因되는 슬픈 現狀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個性을 爲한 表現指導가 不足한 것도 事實이다. 그 외에도 放送을 통한 말하기의 指導 練習을 매우 渴望하고 있다. 圖書室을 통한 말하기는 많은 책을 읽은 後의 기쁨과 意欲을 圖書室 放送을 통하여 發表하게 하는 것도 큰 意義가 있을 것이다.

다만 책을 읽는데 끝이는 圖書室이 되지 말고 多角度로 活用하고 學習의 基礎가 여기에서 始作되어 創意力과 勞作學習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學校放送 또는 學級新聞에 말하는 言語와 쓰이는 文字에도 國語教育和 學習에 큰 重要點이 깃들여 있다. 放送에서 「迷兒」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길 잃은 아이」라고 하여야 듣는 사람들이 알기 쉬울 것이다. 또한 「그런 일은 何等 關係가 없다」고 할 때 「何等」이란 말 대신에 「아무런」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 이외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주고 받고 있다.

다음에 틀리기 쉬운 표준 말을 예사로 알잡고 쓰는 경우가 많다.

「목메 소리」를 「목메인 소리」로 쓰고 「가슴이 설레이」 죽겠다고 할 때 「가슴이 설레이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 國語學習에서 徹底히 배우고 익혔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原因이 있다.

그 밖에도 어휘나 漢字의 획수에도 이왕에 쓴 글자가 허다하게 틀린 글자를 우리 눈에 많이 된다. 또는 倭語를 예사로 쓰는 일이 많다. 이 일은 學生들 세계는 거이 없고 日帝時代에 教育을 받은 指導層에서 「2학년 후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도 「후비」가 아니라 「후미」인데 倭語의 發音에서 나온 習慣이다. 또한 「외래어」表記에 있어서도 國語學에 어떤 統一이 있어야 하겠다. 가령 「스포오츠」를 「스포—츠」로 쓰고 「대한 뉴우스」를 「뉴—스」로 쓰고 「스케이트를 타고 논다」를 「스케—트」로 쓰며 「노크」를 「노—크」로 쓰는 일이 많다. 이 問題도 單一語를 갖고 統一된 文法을 자랑하는 우리 겨레라면 같은 發音에 一定한 表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言語의 文字에 置重하여 均소리가 된 듯한

데 우리는 圖書室 活用に 있어서 學生들로 하여금 읽어야 할 책과 읽어서 도리어 해로운 책에 대한 良書選擇이 大端히 重要한 일이다. 國民學校 學生들이 漫畫商店에서 熱心이 그림과 글귀에 熱中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 勿論 暗記하여야 할 낱말에 골몰하고 時代的으로 의우는 歷史의 事件과 人物에 머리가 아픈 아이들에게 때때로 머리를 쉬기 겸해 娛樂으로 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學生世界에 알맞는 「동화」라든가 「동시」 또는 兒童을 爲한 「위인전」이 크게 어린 學生들에게 좋은 꿈을 그려 주지 않는가! 健實한 生活態도와 豊富한 想像를 마음껏 넣어주기 爲해서는 國民學校로부터 學校圖書室이 절대로 必要하며 時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열번 꾸짖고 벌을 주기 보다는 學生 스스로 깨닫고 구상할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하기 위해 學校圖書室이 必要한 것은 再論할 뜻이 없다.

中等學校에서도 같은 말이다. 思想의 깊이가 없는 學生들이 感情과 冒險만을 즐기는 이 때 至極히 脫線하기 쉬운 때이다.

읽어야 할 책을 圖書室에서 充分히 마련하고 良書를 選擇할 때 그 學生은 읽지 않아도 벌써 공부할 수 있는 態度는 充分히 갖추고 있으며 앞날은 밝고 希望이 넘쳐 흐르고 있는 學生이다. 좋지 못한 책 「비속한 연애 소설」에나 時間만 浪費하고 犯罪를 일으키기 쉬운 「탐정 소설」을 읽으며 밤을 새우는 學生들을 많이 본다.

우리는 이런 學生들에게 圖書室으로 나오도록 하여 健實한 「세계 문학」이나 우리나라 純粹文學 또는 人生問題나 哲學問題에 自身을 회의하고 고민하는 학생에게 教養書籍을 圖書室에서 읽히고 서로 讀後感을 圖書室 放送室에서 發表하고 批評하는 時間을 마련할 때 얼마나 學生들의 將來를 위해 큰 뜻이 있을까! 圖書室은 비단 그뿐만 아니라 精神安定의 唯一한 道場도 될 것이다. 율분과 空想으로 헛된 생각을 갖기 쉬운 時節에 圖書室에서 조용히 앉아서 授業할 수 있는 態度를 갖출 때 마음은 포근히 가라 앉는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教科書에만 置重하는 教育目標에 入試問題에도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國語라는 問題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創作能力과 鑑賞할 수 있는 情誼教育이 가장 緊要한 것이 아닌가?

흔히 學校生活에서 자주 느끼는 일이지만 學生들이 週番이 되어 校庭에서 週訓을 發表할 때 또렷하게 자기 意思를 제대로 말하는 學生이 얼마나 되는가 대개가 龍頭蛇尾가 되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없는 때가 많다. 이런 學生들이 社會에 進出하였을 때 社會의 指導者로 어떤 意思를 定해 있는 時間에 果然 모두 發表할

수 있을런지 簡單한 問題가 아닐 것이다.

다음에 圖書館에 많은 揭示板을 備置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눈으로 익히는 學習活動이 必要하다. 침착하게 觀察하는 能力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다시 換言하면 圖書館이 學校教育의 核心이 되어 生活의 源泉이 되어야 할 것이다. 即 學校圖書館이 學生의 心臟이 되어 文化의 殿堂이 되는 同時에 地域社會에 緊密한 關係와 貢獻하는 圖書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文教當局에 바라고 願하는 일은 學校圖書館運營을 위해 特別한 物心兩面의 後援과 협력 책이 있어 주기를 크게 바란다. 英國의 「옥스 포드」大學이 世界的으로 有名하게 된 原因의 하나로 훌륭한 圖書館施設에 밤낮으로 찾는 學生들이 그곳에서 眞理를 깨닫고 나라와 人類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人生觀이 圖書館에서 세워진 것이다. 大學을 卒業할 때는 온갖 情熱을 쏟아 공부한 圖書館의 기둥 하나 하나를 만져 보면서 떠나기를 아쉬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社會에 貢獻하는 참된 人格陶冶가 바로 이 圖書館 模樣으로 우리나라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放送室과 錄音機 및 映寫機 그리고 有益한 音板이 있어 圖書館內에 多角度로 活用하는 實踐學習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책을 읽는데 끝이는 圖書館이 되지말고 읽고 쓰며 말하는 모두가 圖書館內에서 始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學校 當局에 바라는 일은 어려운 學校 살림이 지만 最小限度의 圖書館運營을 爲해 施設과 공부할 수 있는 還境에 많은 도움과 밑받침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 며 教師들에게 올리고 싶은 말씀은 圖書館에 있는 書籍을 授業時間에 紹介해 주시어 學生들로 하여금 圖

書館에 있는 많은 책과 親近하게 할수있는 기틀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란다. 學習時間에 얻은 知識을 圖書館에서 폭을 넓힐때 얼마나 많은 學識이 學生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이에 풍부하게 얻어지는가!

다시 學生들에게 말하고 싶은 일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참되게 人生을 살아갈 것인가 몸부림 칠 때 그 學生은 人生航路에 올바른 길을 이미 찾은 學生이다. 그 學生들에게 強調하고 싶은 말은 오로지 學校圖書館에 찾아가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어갈 때 어둠속에서 밝은 햇불이 學生들 自身을 爲해 빛어줄 것이다. 이때 學生들은 부지런히 그 불을 앞세워 眞理의 象牙塔을 찾아 平生을 걸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館 중 學校圖書館만은 安心하고 무엇 이던지 읽을수 있으니까 勸告하는 것이다. 司書教師가 良書選擇에 全力을 기울여 여러분 앞에 내 놓게 되는 까닭에 安心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社會에서 活動하고 계신 有志계 올리고 싶은 欲望은 地域社會의 發展과 어린 새싹의 앞날을 위해 한권의 책이라도 學校圖書館에 寄贈해 주시는 知性人의 힘이 크게 아쉽다. 보내주시는 한권의 책이 여러사람의 눈을 통해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때 이 얼마나 기쁜 일이 겠는가! 圖書館에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끌리는 것은 芳名錄에 붙어 있는 圖書寄贈의 名單이다. 한 사람의 기쁨을 여러 사람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偉大한 奉仕 그 가운데도 知識의 傳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맛 본 사람이 아니면 體驗할수 없는 일이다.

分明히 圖書館은 現代文化의 씨알이 된다. 그 가운데 學校圖書館은 여러 學生들이 갈고 닦는 心身鍊磨의 꽃봉오리이며 學校生活의 殿堂이다.

學校圖書館의 發展과 隆盛이 따를때 비로소 우리나라 教育의 기틀이 올바른 자세에서 앞날은 기필코 曙光이 있을 것이다.

## 도협 월보 원고 모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음과 같은 內容의 論文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消息.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 磨勘은 每月 30日 限 )

編 輯 室